

춘향제 조례개정 촉구

제전위, 부당한 행사개입 사례 격론·독립성 확보 등 핵심 원칙 운영

춘향제위원회는 지난 5일 제전위 사무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각계각층의 시민 여론을 수렴하되 독립성이 있는 제전위원회로의 조례 개정 촉구를 의결했다.

제전위원 19명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춘향선발대회를 비롯, 제전위원 사퇴촉구 집회 신고 등 부당한 행사개입 사례에 대해 격론을 벌인 끝에 제전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함께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합리적인 승복을 핵심 원칙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하여 춘향제 조례 개정을 남원시와 시의회에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제전위원들은 "춘향제는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대표공연예술제의

전통예술분야 전국 1위에 선정되어 역대 최고의 평가를 받아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고 새로운 춘향제를 만들어가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춘향문 화선양회와의 끊임없는 갈등으로 제전위의 혼란이 야기되고 정상적인 춘향제 준비가 곤란할 정도로 이르렀다"며 "대외 경협이 없는 선양회에서 춘향선발대회를 요구하며 의결된지 하부도 되지 않아 재심을 요구하는 등 40일간 9차례의 공식회의를 개최해야 했으며 수의계약대상이 되지도 않은 품질장터 사업권을 요구, 갈등이 지속되었고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자 제전위원장 공동위촉을 발미로 위원장과 제전위원 사퇴 촉구를 촉구했다.

향제 기간을 포함한 58일간 신고하는 등 제전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적 절차가 성립이 없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춘향제의 끊임없는 갈등을 종식시키고 시민을 위한 춘향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전위 구성은 각계각층의 여론을 담되 제전위의 운영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해 춘향제 조례 4조 2항을 '제전위원장을 남원시장과 춘향문화선양회장이 협의하여 공동 위촉한다' 에서 '남원시장이 춘향문화선양회장을 포함한 7명의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위촉한다'로 개정하라"고 남원시와 남원시의회에 촉구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군이 추석 명절 전후로 벌초, 성묘, 추수 등 야외활동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쯤쯤가무시증 등 가을철발열성질환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창군, 가을철 쯤쯤가무시증 예방활동 총력

기피제 보관함 점검·팔토시·방석·리플렛 등 배부

고창군이 추석 명절 전후로 벌초, 성묘, 추수 등 야외활동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쯤쯤가무시증 등 가을철발열성질환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역 내 등산로 및 마실길 주변에 기피제 보관함 21개를 점검하고 기피제 및 팔토시 9850개, 1인용 방석 5000개, 리플렛 1500매를 배부했으며 지역 행사에 캠페인을 전개

하는 등 쯤쯤가무시증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6일 전했다.

또한 경로당과 노인대학 등 어르신들 대상시설 31개소를 오는 10월말까지 순회 방문해 예방교육 및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쯤쯤가무시증은 들쥐에 기생하는 털진드기나 바이러스에 의해 9월~11

월 중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발생하는 질환으로 전신의 나른함, 발열, 두통, 오한 등 감기몸살과 비슷한 증세와 피부발진 및 가피형성 등의 증세를 보이는 제3군 법정 감염병이다.

군 관계자는 "눈·발, 풀숲에서 작업 후나 야외활동 후 두통, 고열, 오한 등을 동반한 감기증상이 있거나 진드기에 물린 상처, 피부발진, 급성 발열 증상이 나타나면 서둘러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접수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임실군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도정 핵심시책인 '삼라농정' 실현을 위한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시장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차액의 일부(90%이내)를 도비와 군비로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농가 경영안정시스템을 구축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며, 군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조공법인, 농협, 읍면사무소 등 관계기관 실무담당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정된 품목을 시군통합 마케팅 전문조직(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계약재배 및 계통출하

를 실시하는 농업인이다.

올해는 가을무와 가을배추가 지정품목으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과 체결한 출하계약을 이번달 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많은 농가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농민이 행복한 농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건강장수연구소, 당뇨극복 특별교육 실시 '호응'

식단실습·운동요법 등

(재)순창 건강장수연구소가 순창 지역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당뇨극복 특별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당뇨극복 특별교육은 5일부터 6일까지 순창건강장수연구소 일원에서 진행되며 비교적 당뇨병 정도가 심한 주민 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특별교육은 지난 7월 240여명의 지역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습형 교육을 수강한 주민들이 교육내용에 만족하고 입소문을 내면서 교육을 받지 못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재)순창건강장

수연구소는 이번교육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당뇨 합병증 우려자를 우선 선발하는 등 내실을 기하고 있다.

또 이계호 교수, 조선대학교 양명자 영양팀장 등 당뇨관련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강사진을 꾸렸다.

교육 내용은 당뇨 관리의 첫 번째 조건인 당노식단실습은 물론 운동요법, 스스로 당뇨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간호강의 등 당뇨병 환자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중점을 뒀다.

교육 첫날인 지난 5일에는 건강장수연구소 3층 강의실에서 참여자 50여 명이 모여 1박 2일간 교육일정을 소화했다. 첫 강의는 발관리와 혈당관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혈당측정을 해보는 실습교육이 진행돼 참여자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또 점심시간에는 환자들이 직접 당뇨에 좋은 현미밥, 흑미수육 등의 요리법을 배우고 실습해 보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오후에는 인바디 측정과 운동 등을 통한 당뇨극복을 위한 개인별 상담 및 혈관측정 등이 진행됐다.

특히 오후시간에는 바른먹거리 강의로 유명한 충남대학교 이계호 교수의 당뇨를 위한 먹거리 강의를 진행하며 지역 주민들이 좀처럼 접하기 힘든 유익한 시간이 됐다.

2일차인 6일에는 조선대학교 양명자 영양 팀장의 바른식생활을 위한 영양 강의와 만족도 조사가 진행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개최

10일~11일까지 고창공설운동장에서

사)대한민국항공회(회장 이영덕)가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고창군 고창공설운동장에서 '제2회 산림청장배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를 개최한다.

대한민국항공회,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 고창군패러글라이딩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산림청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산림청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산림레포츠 대회로 산림레포츠시설 확대와 산림레포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스피드XC, 정밀착륙, 2인승 텐덤 경기(시범종목) 3개 종목 7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종목별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트로피, 상장 등이 수여된다.

또한, 대회기간 동안 행·패러글라이딩 교육체험, 드론조정 체험, 전동비행기 제작 및 날리기, 모형항공기 제작 및 날리기, 열기구 계

류비행 탑승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대한민국항공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산림에서 즐기는 항공레포츠(패러글라이딩)를 소개하고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산림레포츠와 항공레포츠의 저변확대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패러글라이딩이 어렵고 위험한 레포츠가 아니라 안전을 준수한다면 누구나 안전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레포츠로 더욱 사랑받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산림을 활용한 레저 스포츠 개발과 보급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항공회에서는 대회 개최식에 참여한 시민 중 선착순 200여 명에게 '종이비행기날리기' 이벤트를 실시해 참석자 전원에게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국립공원

순창경찰, 추석맞이 종합캠페인 전개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은)는 6일 순창읍 전통시장 일원에서 경찰과 JCV회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한 추석명절을 보내기 위한 추석절 특별방범활동을 4대 사회악 근절 및 금융사기 예방 등 종합캠페인을 펼쳐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캠페인은 추석전후 특별방범활동을 알리고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근절 중 특히, 제수용품이 불량식품으로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날로 그 수법이 다양화 되는 금융사기 예방요령도 홍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최 서장은 "추석명절 전 범죄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식품이 판매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통시장에서 캠페인을 전개했다"며 "간담하고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4대 사회악 근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경찰, 추석 특별방범활동

남원경찰서(서장 황종택) 동통지구대(대장 곽을용)가 추석 전·후 특별방범활동에 들어갔다.

동통지구대는 지난 5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현금 인출이 많을 것에 대비하여 동통우체국 등 금융권 및 편의점을 상대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방범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점포 내 근무시 안전수칙 당부 및 현금 호송시 단독호송을 금지하고 3인 이상 수송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고액보호를 위한 조치나 특히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해 다액인출 고객은 수표나 온라인거래 이용을 권하고 범죄의심시 신속하게 112로 신고하도록 홍보했다.

곽을용 지구대장은 "평온하고 안전한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도록 사전 방범활동을 통해 안전한 치안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찾아가는 안전도우미 양성교육 실시

화재·지진·응급처치 교육 등

임실군은 6일 전북도 119안전체험관에서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 관내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안전도우미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찾아가는 안전도우미 양성교육'의 일환인 '일상속의 생활안전'을 주제로 독거노인관리사, 복지도우미, 부녀회원, 이장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군은, 안전도우미의 의식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이론과 실습을 병행했다.

특히, 소화기 및 화재대피 체험, 지진과 태풍체험, 교통안전 생활안전체험, 전문응급처치교육 등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을 습득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재난 재해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도우미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다문화센터, 검정고시반 교육성과 '특독'

고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강연화)가 운영하고 있는 검정고시반이 교육성과를 톡톡히 올리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검정고시반 12명의 교육생들이 올해 초·중졸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6일 전했다.

수강생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학업에 열중해 노력한 결과 7명이 지난 4월 1차 초등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데 이어 지난 8월 2차 중등졸업 학력 검정고시에서도 5명이 최종 합격하는 기쁨을 얻었다.

이번에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합격한 왕려영(중국)씨는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 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도 준비하고 대학교 졸업장을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했다.

강연화 센터장은 "올해 3년째 운영해오고 있는 검정고시반은 결혼이민자 여성들에게 학력 검정을 통해 한국사회에서의 자존감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엄마가 열심히 공부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교육적인 효과와 더불어 당당한 엄마로서의 자신감 또한 얻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결혼이주여성의 학력 신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자신감 있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당당한 우리 군민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경찰, 강력범죄 모의훈련

임실경찰서(서장 이후신)는 추석명절 범죄 분위기 선제적 제압을 위해 추석절 행사활동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강력범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범죄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임실경찰서는 추석 전후 행사활동 강화계획(9월 5일~9월 18일 14일간)에 따라 범죄취약지역·시간대별 범죄를 분석, 유연하고 탄력적인 경력운용을 통한 범죄분위기 사전제압으로 평온한 명절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명절 전후 발생하기 쉬운 강도·범죄 상황을 가정하여, 112신고를 통한 현장 초동조치요령, 상황전파, 범인 추격, 검거 등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훈련했다.

이날 임실경찰서는, 범죄모의훈련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어떠한 범죄 상황 하에서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추석명절 기간 중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실=진홍영 기자